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 JEW'S FOR JESUS™

2009년 11월 11권 2호

## 즐거운 구세주-마스!!

**구** 세주가 이제 오셨는데, 그의 이름은 예슈아라. 1982년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에 높이 걸린 네온 전자 광고판에서 윗 구호를 내보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수백만명의 관광객들과 뉴욕시민들이 이 곳 - 여러 가지 활동들의 중심무대인 - 을 지나가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그 달에 한 시간마다 세 번씩 이 메시지를 내보내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굉장한 반응을 접했지요. 전화들이 울리고, 들어오는 우편물은 증가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슈아라는 사람에 대해, 그가 누구였고, 그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해에 우리는 뉴욕 타임즈 신문에 전면광고를 - 비슷하지만 조금 더 긴 분량으로 - 실었습니다. 우리는 쿠폰을 통해서 응답한 사람들에게 책을 제공하였습니다. 수백명, 수백명의 뉴욕 시민들이 이 기회를 잡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저는 여기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27년 전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불과 수년전쯤의 사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무엇이 저로 하여금 그 사실을 그토록 가까운 것으로 느끼게 하고, 그토록 생생하게 기억하게끔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 메시지를 12월과 우리의 시간 속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신문광고는, 우리가 2007년 5월에 호주 퍼스와 그보다 조금 일찍 애틀라이드에 내보냈던 광고와 동일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독자 중 많은 분들이 그 광고를 금전적으로 후원하였고, 우리는 이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책을 쓴 연구가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책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내보내기 위해 1982년의 크리스마스를 선택하였을까요? 미국인들이 종교를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에는 종교적 메시지가 금기시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2월은 종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며, 주류 잡지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과 스포츠 팀들까지도

종교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영화들은 크리스마스의 주된 주제 - 나눔과 베품 - 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그 내용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제에 가깝습니다 -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이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슈아 당신을 빼놓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모든 시간 내내) 그를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호주에서 복음에 관한 소책자들을 더 많이 나누어줬는데,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쯤, 더 많은 비신자들이 하나님과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유대인들도 그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를 선포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 맘때 즈음, 북반구의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은 일찍 찾아옵니다. 크리스마스 와 하누카를 밝히는 불빛들은 (유대인의 절기인 하누카도 보통 비슷한 때에 치뤄집니다) 캄캄한 밤을 배경으로 한 겨울에 밝게 빛나지요. 그렇다면 이 절기 동안 예슈아께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가 딱 들어맞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슈아께서 예루살렘의 특별한 무대로 - 솔로몬의 대문 근처의 신전 지역 - 걸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대는 또한 “겨울”과 “헌신의 잔치”로 정의됩니다. 이는 “하누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달은 그의 걸어감을 기념하는 시간인 동시에, 그가 그 날에 이룬 선언을 기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30절에 그는 말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절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부른 적이 없다든지, 특별한 신성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30절은 그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요. 이 선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 이 선언을 들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했다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로 사람들이 예수의 선언을 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슈님께서 당신이 특별한 심부름꾼이나 선지자나 영웅임을

선언하였습니까? 아닙니다 - 그것들은 돌로 죽임당할만한 죄가 아니지요. 그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에서 사람들의 대답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들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 예슈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믿었고, 말했습니다.

**이** 절기는 사실 유대인들이, 다수에 대한 소수의 승리(유대인들이 시리아 출신의 그리스인들을 물리친) 기념하곤 했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65 BC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4세 통치하의 그리스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들의 어두운 종교를 가져왔고 모든 유대인들을 우상숭배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신전 밖으로 적들을 물리쳤고, 신전을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어두움의 역사 속에서 빛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때에, 불타는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 유대인들의 정신들 속에 활활 불타오르던 그 때에, 빛과 어둠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던 그 때에, 예슈아께서는 당신이 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빛이 어두움의 역사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선포하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1세기에 어떤 유대인들이 그를 반겼던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이 그를 반겼으면 좋겠습니다(마치 베드로, 바울 그리고 수만명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밥 멘델스존 (Bob Mendelsohn, 총재, 호주)

**영** 국의 역사가 아놀드 J. 토인비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진화론적 이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대한 10부작 연구인 “역사의 연구”에서, 이 저명한 학자는, 영토도 없이 2천년이나 지속해온 유대인 나라의 존속성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그 유대인 나라가 인류의 바다 위에 떠다니는 “화석”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퇴화된 유물”이며 사라질 운명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명한 역사가가 정말, 정말로 잘못 생각했군요.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당황스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 추수감사절을 위한 신앙적 원인을 제공하는 것 말고도, 이스라엘 나라가 왜 존속하고 있는가 말합니다. 태어난 땅에서 강제로 뿌리를 뽑히고 쫓겨나도, 모국어가 더 이상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아도, 추방당해서 정착한 땅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경멸받으며, 심지어 죽임을 당해서 슬퍼해도, 이스라엘은 살아남았고 게다가 번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존하겠다고 굳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프** 랑스의 왕 루이 14세는 어느 날 위대한 철학자였던 블라제 파스칼에게 기적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스칼은 대답했습니다: “폐하 - 바로 유대인들의 존재가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맹세하였습니다 -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흠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레위기 26:33).”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추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그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에서 보존하고 그들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흠으시겠다고 맹세한 그 분께서 또한 다음과 같은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에스겔 36:24).”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증인입니다. 2000년간의 추방 후, 이스라엘은 다시 그 태어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5천9백만명의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인구는 미국내 유대인의 인구에 맞먹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보다 이스라엘 내에서 살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화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놀랍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직도 주목할만하지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외 이민 행보입니다. 1948년 이래 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최근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 떠나고 있습니다 - “여러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같은 상황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스라엘 출신 유대인들은 오늘날 전세계 어느 유대인들보다도 복음에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바깥을 여행할 때면, 보통 그들은 더욱더 복음에 열려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3년동안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이 “나라들 가운데에 거하는 이스라엘” 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 특히 극동과 남미에 있는 거대한 이스라엘인 배낭여행자 공동체를 위함이지요. “마사(Massah - “여행” 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배낭여행자들을 만나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게끔, 예수님을 믿는, 젊은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소그룹들을 멀리 떨어진 지역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마사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사역을 견고히 하고 더 확장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차린 것처럼, 꼭 인도나 태국으로 가야 이스라엘인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전세계의 주요 도시들을 (그리고 그보다 좀 작은 도시들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가운데 그들의 여행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놀라운 기회들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이 진행하는 “이스라엘이여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캠페인에 참가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여행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근처로 보내신 이스라엘인들과 하나님을 나눌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동네 가게에서 핸드폰부터, 사해에서 추출한 화장품까지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는, 이스라엘 소매상들을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음에 장 보러 나갈 때 한 번 주목하여 보세요.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대화를 나누기 매우 쉬우며, 당신이 그들의 물건을 사주든 사주지 않든 간에, 보통 당신과의 대화를 반가워할 것입니다(뒤에 다른 손님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번에 친근감이 오고 잤다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그들을 방문해보세요.

기독교의 절기들이 다가오면서, 우리 소식지 구독자들과 후원자들은 각각 자신의 나라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접근할,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적으로 지내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절기들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초대할 한다면 반가워할 것입니다.

두세번 정도 이야기 나누는 사람을 가족모임으로 집에 초대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환대는 흔히 있는 일이며, 결코 그들에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매우 성경적인 일이죠(레위기 19:34과 히브리서 13:2를 참조하시죠).

절기들은 당신의 손님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들을 줍니다. 크리스마스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성화 이야기를 다시 간단하게 들려준다면, 예슈아(예수)에 대한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다리가 연결되었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따온, 예수님의 구원자되심을 예언하는 성경구절도 포함시키십시오).

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이 절기에 대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당신의 초대를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당신의 가정에서 이를 듣고 당신의 기쁨을 보고 이 기쁨 소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겠지요.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은 아주 많은 양의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히브리어 소식지, 신약과 히브리어 요한복음등등이 포함됩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이들을 손님의 손에 쥐어주는 것도 좋겠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을 진실로 믿습니다만, 또한 “나라들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에 대한,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기회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군요 - 우리들 가운데와 전세계에 거하는 이스라엘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나중에 그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 어쩌면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말이지요.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이스라엘의 절대적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데이비드 브릭너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 지부 소식들

런던 London

이스라엘 Israel

**요**엘이 보고합니다: “지난 3월, 저는 보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골더스 그린에서 우리의 복음 소책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요엘은 지금 이스라엘 지부로 옮겨갔죠). 저는 아시프라는 이스라엘인과 대화를 조금 했는데, 대화가 진전될 수 있게끔 개인사항들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인 아미르는 제가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슬며시 듣더니 저에게로 와서, 그가 신약성경을 예전부터 읽어왔는데 이제 믿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게 아니죠! 그와 저는 서로 전화번호도 주고 받았습니다.”

“아시프는 다시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디만, 아미르와 저는 서로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로서 그와 복음을 나누고 그를 교회에 데려감으로서 영적 기반이 많이 확립되었습니다. “

“우리가 만난지 얼마되지 않아 저는 미국으로 3주 강연여행을 떠났고 아미르는 그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휴가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그의 부모에게, 교회를 다니고 선교사를 만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미르는 담대히 이야기했고 그의 성찰에 대해 열려있었습니다.

“우리가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아미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부모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커야한다고 말했는지 이해한다고, 아미르는 예수님을 위해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후에 런던에 있는 그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로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 다 같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경구절이 생각나더군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38).’

##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

**테**레사의 보고입니다: “시몬은 아주 활동적인 유대계 여성으로서 기독교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와 나는 예수의 구원성과 그를 유대인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두 번 만났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Betrayed 라는 책을 주었고 그녀는 즐거워하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음성녹음 메시지를 많이 남기고 기다렸습니다. 최근에 저는 시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 이번에는 받더군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테레사, 당신이 오늘 전화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이 정말 저를 원하나봐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전날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묘비로 걸어가는데, 그녀의 사촌이 고백하기를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며 메시아에 대해 시몬과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몬의 사촌을 강력하게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또한 시몬이 다시 저와 만나기로 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손을 뻗으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야텐은 로자라는 여성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거주 유대인이었고 우리의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쉬 단 지역” 캠페인이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와 전화로 만났습니다. 야텐은 보고합니다: “그녀는 러시아어 신약성경을 받아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생물학자였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궁금히 여겼고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질문들 중 몇 개에 답했고 성경 읽기를 권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다 같이 읽었는데,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모두 가져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자기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그 후에 다음 방문을 위해 택시를 타야했는데 도무지 잡히지 않았어요. 너무나 더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가는 길에 운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더 들을 수 있도록 그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다음 방문은 또 구쉬 단 캠페인에서 만난 리오라였습니다. 리오라는 60세였습니다. 그녀는 복음에 대해 아주 열려있었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저와 같이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10)

## 연락처

JEWS FOR JESUS:  
G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  
호주 전화번호: +61.2.9388.0559  
이메일: mail@jewsforjesus.org.au  
홈페이지: jewsforjesus.org.au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영국에도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호주 NAB BSB 082.067 계좌번호 46.072.8465  
뉴질랜드: BNZ. BSB 020.484 계좌번호 010.6273  
싱가포르: OCBC 예금주 : Jews for Jesus.  
계좌번호 581.252.897.001

PayPal, 신용카드 그리고 TT로도 후원을 받습니다.